

12월의 기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감사함 속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옵소서.
3. 사방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만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준비하고, 가장 귀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옵소서.
5.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섭, 박명키, 박상현, 이태원, 최인철, 함석숙, Carolina Burnett, Imaobong Odutola, Sounouvou Noudemalin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라

제가 캐나다에서 성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의 뉴욕에 도착해보니 어느 조그만 농장에 가서 설교하기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광패와 마약 중독자와 알콜 중독자들을 갱생시키는 농장인데 그 이웃 동리 사람까지 합쳐야 300명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을 이런 산골짜기 농장에 그것도 고작 300명 모이는 교회에 설교를 하라니, 여기 말고 2천 명 이상, 2만 명 이상 모인 곳에서도 와서 설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게 뭐람, 이것은 분명 시간 낭비야.'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우물가에까지 가서 설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강단에 올라오더니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서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저는 하복부에 대동맥이 막혀 하반신 마비증세로 앓은뱅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장병, 위장병까지 겹쳐 온몸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어서 몇 년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해 왔는데 오늘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들것에 누워 실려 왔는데 조 목사님의 기도로 이렇게 제가 바로 서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매는 너무 기뻐서 울음을 그칠 줄 모르고 나의 손을 만지면서 "조 목사님, 한 번만 더 만져 봅시다.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며 저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농장은 행정구역상 뉴욕 주에 속해 있을 뿐이지 그야말로 천적산중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게 되리라고는 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 자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제가 홀룡해서가 아니라 그 자매가 조 목사님만 만나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발자취

2000년 아프리카 잠비아·가봉 성회



열방을 향한 선교가 활발해져가는 시기에, 성회의 전반적 사역을 지원하는 선교전문기구 DCEM은 지구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의지의 첫 걸음으로, 거대한 기회의 땅 아프리카로 향했다. 2000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잠비아와 가봉에서 각각 연이어 개최하게 된 본 성회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복음의 대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 쇼그라운드와 울룽구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성회에는 연인원 10만여명이 참석했다. 조용기목사는 잠비아 칠루바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집회를 인도했다. 칠루바대통령은 1995년 스톡홀름에서 조목사를 만나 "기독교 국가인 잠비아의 분열된 교파가 하나되는 것과 가난과 질병과 기아의 땅에 용기와 희망을 달라"며 잠비아집회를 요청했으며, 조목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비아대성회를 개최했다. 조용기목사의 집회가 열리는 동안 루사카의 밤 하늘은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5천여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며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됐다. 위장병을 앓는 사람, 신경통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노이로제의 증상을 보이던 여인, 귀가 잘 들리지 않던 노인 등 100여명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 칠루바대통령은 루사카 쇼그라운드에서 열린 성회의 다음날 조목사를 대통령 직무실로 초청하여 기도를 받기도 하였으며 16일 울룽구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회에서는 각료들과 함께 참석, 설교를 경청했으며 함께 찬양을 하고 춤을 쳤다. 콩고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앙골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잠비아의 현지 방송과 신문에서는 조목사

의 집회를 보도하면서 "조용기목사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음의 메신저"라고 전했다.

◎...조용기목사가 가봉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6월 18일 밤이었다. 조목사를 환영하는 2천명의 군중이 '용기 조'를 외치며 환호했다. 군중들은 조용기목사의 손을 잡아 보려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자칫 위험한 순간을 맞을 뻔 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성회 참석자는 줄잡아 15만명을 넘었다. 4만 5천여명이 모인 것은 인구의 1/10이 모인 셈이다. 시민들은 집회 시작 3시간 전부터 입장해 춤을 추며 찬양과 기도를 계속했다. 매일 밤 진행된 집회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조용기목사는 이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했다. 그 결과 3만명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2백명이상이 병고침을 받았다. 가봉 국민들이 조용기목사를 환영한 또 다른 이유는 가봉과 한국과의 역사적 연결고리 때문이다. 아프리카 전체를 놓고 볼 때 당시 우리나라와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가봉만큼은 오래전부터 수교관계를 유지해왔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3세계의 지원을 얻기 위해 봉고대통령과 친분을 맺어온 것이 계기가 됐다.

◎...조용기목사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희망이 됐다. 성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조용기목사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울려 감사의 축제를 벌인 성회로 기록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금과 은, 부귀 영화와 권력이 값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행언할 수 없이 값진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은보석으로 치장해 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한 그 옛날에 택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39절)

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정한 그 죄줄을 끊고서 마음대로 타락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져서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0-32)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마음에 건장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

님께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모든 일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생을 해도 그 고생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마음속에 어제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사랑 받고 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다가오고 삶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3.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풍파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처절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라는 것은 오면 오히려 더 사랑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기근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밖에 있는 기근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기근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일본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 드려져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고(故) 조용기 목사의 추모예배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1시 일본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드려졌다. DCEM의 주관 아래 순복음일본총회가 주최하고 순복음동경교회(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 후원으로 드려진 추모예배는 지난 40여년 간의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 사역과 업적을 되돌아보고 회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배에는 순복음일본총회 80여개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일본인 교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참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영상으로 추모사를 하고, 야마토감보리채플 오오카와쓰구미치목사, 순복음나고야교회 김유동 목사, 카리스채플 무라카미요시노부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의 만남과 기억을 추억하며 추모사를 이어갔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와 싱어즈의 인도로 조용기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의 여정이 담긴 영상을 감상하며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38년 이상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사역을 곁에서 함께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5:25-34의 말씀을 전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선교 여정에 함께 하면서 목격한 기적의 순간들을 간증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을 회상하는 시간

을 가졌다. 또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꿈인 일본 일천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립하여 내년에 개교하는 삿포로신학교(학교장 이영훈 목사, 이사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일본 일천만 영혼 구원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코로나 상황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일본에서 모인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고 목사님의 일본 선교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 결단하는 뜻 깊은 예배였다.